

2023년 10월 19일

도야마 아루마(도와다현대미술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미술가가 된 계기나 어렸을 때 받은 영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여덟 군대를 전학을 다녔어요. 전학을 많이 다녀서 항상 외톨이였죠. 어디를 가든 “전학 온 최정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이사를 매번 다니니까 어릴 때 친구가 항상 없었어요. 당시 저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줍고 모으는 습관이 있었어요. 단추, 핀, 옷핀, 길바닥에 널려 있는 철사 조각, 못 조각 등등. 어른이 되고 대한민국의 세계 각지를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하던 일과 지금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그림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지금도 미술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서양화, 유화, 아크릴, 기본적인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 같아요.

그림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수학 시험이 매번 빵점이었어요. 그때도 시험 답안지를 안 풀고 감독관 얼굴을 답안지에 그렸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는 체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막 때리고 그랬죠. 혼나면서 교무실로 끌려가던 중에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종이를 보신 거예요. 그러자 미술 선생님은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저를 데려가서 미술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갑자기 미술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를 했어요. 그동안 전문학교에서 디자인을 배우고, 홍대에 들어갈 때 입시를 봤어요. 입시를 볼 때도 재미있게 했어요. 미술은 모르는데, 실기 시험에 벽돌, 스테인리스 그릇, 풍선이나 지푸라기가 나오잖아요. 벽돌을 그리라는데, 벽돌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 볼펜과 송곳, 펜으로 종이에 구멍을 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삭 비비면 벽돌처럼 보이죠? 시험장 애들은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죠. 그렇게 입시를 봤는데 학교는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홍익대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재미없었어요. 그 당시는 집이 있던 홍제동에서 학교까지 한 1시간 반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녔거든요. 걷는 걸 좋아하고 산책하는 걸 좋아했죠. 제 표현으로는 골목길. 그래서 공사장, 골목을 다니면서 굉장히 재미있는데, 학교만 가면 재미가 없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학교는 또 재미없고. 그러던 중 85년도에 일본을 처음 무전여행으로 갔어요. 정말로 돈 몇 십만 원만 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다녔죠. 그때 당시는 여행 자유화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 서류나 다른 서류까지 만들어서 일본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학교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미술가가 되고 싶어 하셨나요?**

미술 혹은 미술가라는 말은 되게 재미없는 말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미술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예술 인간이라는 말이 어울릴지도요.

대학교 3 학년 때, 그러니까 86 년이죠. 중앙미술대전이라고 큰 공모전(competition)에 내려고 걱정했어요. 수상자를 유럽 여행으로 보내주는 상이거든요. 아직 미술가가 안 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니까 응모했는데 대상 없는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냈는데, 그때는 대상을 받았어요. 연거푸 두 번을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럽의 미술관을 방문하는, 흔히 말하는 미술 여행을 하고 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상 받았던 작품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 남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그림을 안 그리기로 마음 먹고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더 재미있는 출발이죠. 미술가로 시작한 적은 없어요.

**서양화 전공으로 입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화 전공은 수업 시간에 페인팅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리는지, 이런 교육을 받으셨나요?**

교육을 받긴 했는데, 마음대로 그렸어요. 그리다 말기도 했고요. 미술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면서 90 년대 초가 되니까 한국에 패션 숍, 그다음에 카페, 클럽, 이런 걸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공간에서 전시, 공연, 강연을 했는데, 미술은 전혀 하지 않았죠.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난쥬 후미오, 쿠로다 라이지, 시미즈 토시오, 그외 해외 많은 디렉터들이 왔어요. 한국 현대 미술은 당시 일본을 통해서 유럽이나 서양으로 정보가 발신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 카페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하죠.

**학교 다니셨을 때 수업과 별개로 입체 작업은 같은 시기에 하셨나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했어요. 환경, 공간, 입체에 대한 눈이 그때 뜨였고, 그림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어렸을 때 핀이나 작은 물건을 이것저거 모으고 놀았다는 이야기, 대학교 가는 길에 산책을 오래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당시 입체 작업을 실험할 때도 주변 물건이나 길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셨나요?

이때부터 제가 잘하는 시장질, 골목질에 몰두했죠. 시장을 산보하고 다니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과 아줌마, 엄마, 그리고 누구나 집에 있는 물건, 그걸 찾다 보니까 저런 소쿠리, 빨간 소쿠리, 파란 소쿠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예술을 해보자. 그러면 누구나 알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미술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미술을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아주 초기부터. 미술을 안 했으니까. 미술 대학을 가긴 갔지만,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길래 '쉬운 걸 하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등장하고 동시에 누구나 아는 꽃으로 작업하기 시작한 거죠. 99%를 위한 예술을 해야지, 1%를 위한 예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싹 났죠. 진짜 예술은 설명서가 필요 없다. 왜 예술 작품에 설명서가 붙어 있지? 정말로 쉬운 걸 하자. 동시에 기념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퍼블릭 아트가 등장하죠.

**사람들이 도와다 <플라워 호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미술관 전면에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기념 촬영을 찍는 사람도 많습니다. <플라워 호스> 제작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미술관 전시실에 들어가는 사이즈에 맞게 미술가와 건축가가 논의하면서 전시실 형태와 크기를 결정해나가는데, 작가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업하셨습니까? 야외 전면에 놓는 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나요?**

네. 저는 항상 작품을 미술관 안에 놓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사람만 보고 몰라도 아는 체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는 미술, 관객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각자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했고 또 선호했어요. 도와다에서 작업을 구상할 때도 처음부터 야외 바로 전면에 하겠다고 결정했죠.

**난조 후미오 씨의 제안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야외 전면에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도와다는 전시가 결정된 이후에 처음 오셨나요? 오셔서 리서치도 하셨나요?**

네, 그때 처음 와서 리서치를 일주일만에 걸쳐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건물은 아직 없었고 그 지역을 보러 다니신 걸까요?**

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리서치했어요.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해요. 어떤 땅, 어떤 하늘,

어떤 공기 속에 [나도 작품도] 놓이는지, 그리고 지역의 역사가 중요하죠. 도와다가 군마를 양성하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지역 주민에게도 듣고, 자료도 봤어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싸우던 말을 평화와 행복의 말로 바꾸려고 꽃을 붙이게 되었죠.

**그러면 꽃은 어떤 종류로 고르셨나요?**

장소마다 달라요. 뉴질랜드에서 할 때는 뉴질랜드에 있는 꽃을 사용했구요. 일본은 한국, 중국과 기후도 그렇고 꽃의 종류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기 쉬운, 가장 꽃다운 꽃을 붙였죠. 지금 저 방에 있는 앤슈리엄 같은 이상한 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쉬운 꽃, 가장 꽃다운 꽃을 사용한 거죠.

**누가 봐도 꽃이네요. 작품 사이즈는 건축물 크기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건축물 크기를 보고 결정했어요.

도와다는 실제로 일본군의 군마 보충부 시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지역 정체성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미술관이 있는 관청가[官庁街] 거리 인도를 보면 말을 형상화한 물건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마란 결국 일본이 식민주의 정책으로 다른 국가를 침략한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동네는 아직도 군마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데,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역사도 있었고 우리는 지금도 군마의 마을에 살고 있다. 그걸로 끝나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와다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셨겠지만, 작가님은 한국분이시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셨나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복잡하잖아요, 심플하지 않고. 게다가 예술가의 마음은 더 복잡하겠죠. 질문입니다. ‘찬성’의 반대가 뭘지 아세요?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부정’ 혹은 ‘거부’ 이런 말이 아닌가요?**

근데 저는 ‘반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사건, 어제 있던 일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다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오늘을 바라보고,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내다본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역할은 보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말을 택하고 꽃을 붙이고 그림으로써 한국, 일본 양쪽에 반성하는 모습이 양쪽이 다 필요하죠. 돌아보고, 바라보고, 내다보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퍼블릭 아트의 시선이겠죠.

그렇군요. 전부터 궁금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도와다를 방문했을 때는 지역 주민에게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 주민을 만나고,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죠.

세계 각지에서 퍼블릭 아트와 조각을 하시는데, 매년 지역을 여기저기 다녀보고 지역 주민을 만나 얘기도 나눠보시나요?

그렇죠. 지역 주민과도 이야기를 하고, 도서관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하니까요.

플라스틱 작품의 근간에 아줌마나 한국 시자의 다이내믹함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도와다의 시장은 상점가가 될 텐데요, 한국 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점가와 시장하고는 다르긴 한데, 일본 도와다의 상점가는 시장과 거의 같죠. 일본에서도 저런 시골을 좋아하는 게 한국의 아줌마들의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저는 서울이 옛날에 어땠는지 잘은 모릅니다. 작가님이 젊었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본 풍경과 지금의 모습은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감도 다르게 받으시나요?

시장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다 있죠. 일본도 아직도 남아있고, 일본 시장은 우에노의 아메요코 쪽 엄청 좋아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 세계 어딜 가든 시장을 가요. 동시에 저는 쓰레기 처리장을 갑니다. 정부나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각 나라의 재활용 현장도 같이 봐요. 제가 플라스틱을 하면서 쓰레기, 미래 자원, 환경 자원까지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간이 살면서 쓰고 버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생활에 영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술의 영감이 되고. 예술보다 생활이 더 재밌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이 더 재밌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폐기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순환이 되잖아요. 태어나고 버리고 죽고 자라고, 다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예술인 거죠.

그렇군요. 플라스틱은 작가님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소재인데요, 1990 년대에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한국의 급격한 사회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읽는 비평도

있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파는 플라스틱 바구니는 새것이였겠죠. 최근 작업을 보니까 바다에 떠 있는 부표나 재활용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조각도 있네요. 플라스틱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가 변한 이유도 있겠지만, 작가님에게 플라스틱은 1990년대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폐기하는, 그러면서 순환하는 주기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나요?

우선, 플라스틱이 저는 제 2의 자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공이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만든 모든 게 자연이고 그러면 인간이 자연이면 인간이 만든 것도 자연이에요. 그중 플라스틱은 고무나무, 석유의 화학 작용으로 생겨나는 재료인데, 이것 역시 제 2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이 섞여서 콘크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이 인류세 특징으로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0년대나 지금이나 플라스틱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 디지털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하든, 재활용 운동을 하든,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동을 하잖아요. 90년대에 플라스틱 작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언어가 있어요. "눈이 부시게 하찮은, 치밀하게 영성한" 그래서 눈이 부시게 하찮은 플라스틱이 예술이 되어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작품의 타이틀은 alchemy, '연금술'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예술을 만들면서 '예술이 뭐야?'라는 질문과 비평, 비웃음, 비아냥거림까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90년대, 플라스틱 작업을 발표했을 당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모두가 알기 쉬운 물건으로 작업을 하고 발표하셨겠지만, 이런 게 예술이냐고 따지는 비판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특히 작가들이 그랬죠. 미술 시스템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작품이야?"저는 작품으로 재미와 웃음을 주는 거죠.

90년대에 일본작가와 한국 작가가 참여한 기획전이 있습니다. 발행된 도록에 작가님이 쓰신 일종의 시 같은 글이 수록된 걸 봤습니다(전시 《幸福幻想-아시아의現代美術作家たち》《こころの領域-1990年代の韓国美術》). 그런데 글은 어두운 톤으로, 인간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인상을 주더라고요. 대조적으로, 2000년대 이후 본인 작업을 설명하실 때, <플라워 호스>를 보자마자 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쁘고 마음이 즐거운 작품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변화가 있으셨는지, 사회적 영향 또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좋은 질문이고, 아주 감동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이 나이를 먹고, 태양도,

하늘도, 땅도 다 변해가잖아요. 예술가의 생각이 변하는 건 당연하고, 생각이 변한다는 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계속 익어 가겠죠. 익는다는 표현, 특히나 아시아에서는 발효, 된장, 김치, 고추장도 많잖아요. 저도 90년대 초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당연히 다르겠죠. 젊었을 때 치기와 용기는 지금의 온화하고, 부드럽고, 녹여주는 것과 다른 것처럼요. 작가가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작가가 자연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작가가 환경에 개입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홀로비온트(Holobiont)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온 생명체, 통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김치 같은 거죠. 배추와 김치가 다르잖아요. 고춧가루, 젓갈만 넣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버무리는 사람의 마음, 지역마다 특성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전체가 하나예요. 무한성이죠. 플라스틱을 처음에는 그냥 쌓기만 하다가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했고 홀로비온트가 나왔어요.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과 같죠. 맛있는 김치를 만들려면 재료가 주어져야 되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먹는 사람까지 필요하잖아요. 내가 먹든, 너를 먹이든, 모두가 부모가 되는 거죠. 결국 <플라워 호스>도 맛있는 예술의 한 형태가 아닐까?

**최정화라는 만드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인 관객이 있고, 즐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좀 전에 보는 걸 먹는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먹는 사람이 관객입니다.

**먹는 사람이 관객이군요. 이해했습니다. 90년대 얘기를 제가 자꾸 물어보게 돼서 그런데요, 당시 사회나 미술계 현황에 대해 매우 분노하셨었나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시에 한국 현대 미술 씬은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둘밖에 없었는데, 둘 다 재미없었죠. 그래서 짠짓을 하려고 혼자 즐겁게 놀았죠. “너희 이거 모르지?”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플라스틱이었어요. 사실 90년대 산업과 사회와 연관시켜서 쓴 비평에 저는 공감을 못 해요. 플라스틱은 젊었을 때 부딪힌, 날이 서 있던 뼈격거린, 플라스틱 같은 인생이었죠.

**지금까지 작가님도 함께 조금씩 변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나 방향성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타 노바 (Vita Nova)가 알파벳 표기인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하면 ‘새 생’, 한자어로 바꾸면 ‘신생’이겠죠, 근데 ‘새 생’이라고 하면 새롭다는 의미보다 신선하고, 날 것, 갓 태어났다는 의미이죠. 여태까지 ‘재생’을 이야기했다면, 재생보다 ‘새 생’이 더 중요해요. ‘재생 다음은 새 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타 노바라는 단어를 꺼내게 되었죠. 예술의 기능을

문거나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울림, 떨림, 끌림까지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다음이 있어요. 스뭉과 섬김이 새로 나와요.

그래서 '생활'이 아니라 '생생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생활' 하면 우리에게 더 에너지의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것 같죠. 이 말은 더 살리고, 살리고, 더 잘 살자. 더 씩씩하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생생, 활활, 무한성, 연금술, 다 마찬가지로인데, 이게 역시 홀로비온트로 정리가 돼요. 온 생명체, 통 생명체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너 없는 나도 없고, 나 없는 너도 없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최근에는 더 줄여서 '나는 너를, 너는 나를'로 더 줄었죠.

환경과 조각과 공간과 인간의 만남을 다루는 그러한 연출을 시도하는 미술 감독으로서 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본다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바라보고, 내다보고'하는 것입니다. 한글에서는 이 맛이 나는데, 번역하기 어렵겠죠. 보는 봄, 여는 여름, 가는 가을, 겨우 겨울, 이것도 홀로비온트라는 얘기죠. 저 뒤에 보이는 조각이 월로 만든지 아세요? 스티로폼. 바닷가에서 버려진 스티로폼을 주워서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돌이예요, 스티로폼이예요?

**둘 다 맞죠. 돌이자 스티로폼이고, 동시에 미술이다.**

뭐든지 되고 전부가 될 수 있다. 맞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작가님의 철학,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내가 너를, 네가 나를'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윤회전생 하듯이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은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것 역시 자연적인 것과 또 인간이 만든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혼성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보고 아시아적인 태도로 이해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구에서 그런 사고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90 년대에 플라스틱을 작업에 처음으로 다뤘던 초기부터 가지고 계신 감각으로 이해했습니다.

마무리 이야기를 하죠. 예술이 울리고, 떨리고, 끌리고, 스미고, 섬김까지 갔는데, 뻔한 단어의 울림으로 끝나니까 멋이 없어보이잖아요. 저는 예술이 뭐냐고 하면, "나를 주장하고, 너를 확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다." 예술은 누구나 예술가이고 모든 것이 예술이예요. 디지털 세상을 사는 미래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이야기겠죠. 이게 공생, 공존, 상생이겠죠.

**상대방, 보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있어주는군요.**



평소에 하던 말을 빼먹은 게 있네. "Your heart is my heart."

감사합니다. 감동적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공개일: 2024년 3월 5일

통역 및 편집: 콘노 유키